

‘세이프 오브 워터’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

‘빅뱅’ 대성 13일 현역 입대

경합 치열 ‘쓰리 빌보드’ 2관왕에

게리 올드먼·프랜시스 맥도먼드

각각 남·여우주연상 영예 눈길

올해 아카데미에서 이번은 없었다. 예상을 빚나간 깜짝 수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 작품에 대한 ‘물 아주기’보다는 균형과 다양성, 안배에 무게를 두고 골고루 여러 작품에 오스카 트로피를 안겼다.

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 작품상과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최다 수상했다.

이 작품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비밀실업실에 들어온 괴생물체와 언어장애를 지닌 청소년(셀리 호킨스)의 사랑을 그렸다. 종을 뛰어넘는 사랑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그리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멕시코 출신의 기예르모 델토로 감독은 이날 감독상을 받은 뒤 “저는 이민자”라며 “영화가 가장 좋은 점은 국경을 없앤다는 것이며, 계속 이렇게 나아가길”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보수적인 아카데미가 종(種) 다양성 영화에 작품상과 감독상을 안긴 것은 세대교체와 변화의 바람으로 읽힌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다양성, 인종차별로 치닫고 있다 보니, 가장 상업적인 할리우드조차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이프 오브 워터’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던 ‘쓰리 빌보드’는 여우주연상(프랜시스 맥도먼드)과 남우주연상(샘 록웰) 등 2개 부문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가져갔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는 음향편집, 유행효과, 편집상 3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촬영상·시각효과상, ‘다크 스톤 아이’는 남우주연상(게리 올드먼)·분장상 등 각각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포영화 ‘갯 아웃’의 조던 필 감독은 각본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갯 아웃’의 수상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흑인을 주인공으로 한 흑인 감독 영화에 주요 상을 안긴 것 역시 아카데미가 배분 내지 안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리 올드먼은 ‘다크 스톤 아이’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쓰리 빌보드’로 영화 ‘파고’(1997)에 이어 21년 만에 두



남우주연상
게리 올드먼



여우주연상
프랜시스 맥도먼드

번재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아이, 토냐”의 엘리스 제니는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장편 애니메이션은 ‘코코’, 외국어상은 ‘판타스틱 우먼’에게 각각 돌아갔다.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는 무관에 그쳤다.

이색 기록도 나왔다. ‘블레이드 러너 2049’로 촬영상을 받은 로저 디킨스 촬영감독은 14년의 아카데미 도전 끝에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각색을 맡은 제임스 아이보리(90) 감독은 각색상을 수상, 올해 아카데미 최고령 수상자가 됐다.

지난 1월 레드카펫을 온통 검은 물결로 뒤덮은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달리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여배우들이 파스텔톤과 다양한 빛깔의 드레스를 입

고 참석했다.

그러나 가슴에는 성폭력 저항 ‘미투’(MeToo)의 의지를 담아 결성한 ‘타임즈 업’(Time’s Up) 핀을 단 배우들이 눈에 띄었다. 시상자로 나온 여배우들도 타임즈 업과 다양성에 대한 포용을 외쳤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여성 영화인들을 객석에서 일으켜 세운 뒤 “나의 귀빈 여러분 포용이 좋은 길입니다”라고 외쳤다.

여우주연상 시상자로는 조디 포스터와 제니퍼 로렌스 등 등장했다.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남우주연상 수상자인 케이지 애플렉이 시상자로 나와야 했으나, 성 추문으로 무대 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는 ‘머드바운드’, ‘코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마셜’, ‘위대한 소맨’ 등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곡들이 공연대 객석의 흥을 돋웠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9·사진)이 오는 13일 현역으로 입대한다.

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대성이 13일 훈련소로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 배치를 받는다”며 “평소 멤버들과 비슷한 시기에 군 복무를 희망했던 대성이 지난해 자원입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빅뱅은 승리를 제외한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7일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태양은 12일 입대를 앞뒀다.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대성은 팀 활동을 하면서도 일본에서 솔로앨범 ‘디스커버’(D’scover), ‘다-데이’(D-DAY)를 내며 활약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톱 콘서트를 비롯해 18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YG는 “이제 다섯 명 중 마지막 남은 멤버는 막내 승리”라며 “상반기 솔로 앨범 발



표 이후 현역으로 자원입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승리는 자신이 주연을 맡은 중국 로맨스 영화 ‘우주유애낭만동유’(宇宙有愛浪漫遊·LOVE ONLY)가 지난 2일 개봉한 뒤 아시아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연예인 특례입학·졸업 취소 처분

정용화·조규만·조권 등

경희대 대학원 입학·졸업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입학 또는 졸업취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9~13일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황 조사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학생 3명의 입학취소와 1명의 졸업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혜를 준 이모 교수 등 교수 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입학취소 대상인 3명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던 씨엔블루 정용화와 사업가 김도 씨, 석사과정에 합격한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 등이다. 졸업취소 대상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2AM의 조권이다.

조사 결과 정용화·조규만 등 3명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전형 모집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합격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



정용화

조규만

장이었던 이 교수가 주도해 이들에게 면접 점수를 하위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 조권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졸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밤상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 (재) 40 1대 100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돌 보험설계 (재)
1	20 팔도발상 (재) 50 승터(재) 55 중계방송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40 강력추천 배틀 트립	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꾸러기 식사교실 45 프리파라 3	00 뉴스브리핑
3	00 천상의 컬렉션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저원	15 통일전망대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05 PD수첩 (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착한 마녀전(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시사기획 창			
10	35 승터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허룻범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독립영화관·명불허전 단편선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전지적 참견 시점 0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극한직업 스페셜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 2부 강의 사람들)	10:30 한국기행(재)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대기행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인도차이나 반도 미식기행 2부 길 위의 만찬, 태국>
06:20 세계대기행(재)	(매생이 마 된장국과 가지 절임)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1:20 세계대기행(재)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스화행 하신가요? 행복을 찾는 중입니다)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00 EBS 점오 뉴스	16:15 율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크프라이
07:45 출동! 슈퍼웬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4차 인간 - 인간은 기계인가?>
08:00 덩동영 유치원1~2	<학교와 마을이 키워내는 아이들 - 인내초등학교>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22:45 우리만 이란가
08:30 플라워링 하트	13:00 다크 오늘	17:30 마사와 곰	23:55 클로벨 아홉 가지 섬관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아슬아슬 학교 가는 길>	17:45 띠띠뽀 띠띠뽀	24:45 지식채널e
09:00 몬카트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24:50 한국영화특선 <모던보이>
09:15 스피 루비	13:40 성난 물고기(재)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6일(음 1월 19일 丁酉)	
子	48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니 기막히겠다. 60년생 술선수법 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으니라. 72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84년생 기본 체계를 중시하라. 행운의 숫자 : 59, 87	午	42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대응이 달라진다. 54년생 감격스러운 일이 터지리라. 66년생 충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78년생 모난 그릇에 든 금 뚜껑 덮으려는 격이다. 90년생 생 결과 속이 짝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01
丑	49년생 지금은 다소 혼란스러울지라도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61년생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73년생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85년생 복잡다단한 일로 인해서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82	未	43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55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되겠다. 67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79년생 여러 가지가 통합되리라. 91년생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52, 51
寅	50년생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와 함께해야 하는 부담이 보인다. 62년생 본심과 별개로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74년생 추이를 더 지켜보아겠다. 86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추후도 변경하려 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3, 07	申	44년생 자신이 쏟아 부은 노력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56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68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80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53
卯	51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63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75년생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서 체계적이야만 유익할 것이다. 87년생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면 아예 하지 않을만 못 하다. 행운의 숫자 : 32, 90	酉	45년생 적극성을 띤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57년생 보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69년생 필연적이라면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81년생 용감하게 추진한다면 득이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60
辰	52년생 진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64년생 관세의 변화를 가져 올만한 중차대한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76년생 움직일 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88년생 앞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06, 92	戌	46년생 열심하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58년생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70년생 생각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82년생 살기 된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행운의 숫자 : 72, 96
巳	53년생 판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65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77년생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있으니 결코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89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82, 10	亥	47년생 제3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다. 59년생 바야흐로 길은이 한창 피어나는 때이니라. 71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 된다. 83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이 겹칠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9, 09